

한국청소년의 성교육을 위한 시청각프로그램이 성역할정체감 및 성태도에 미치는 효과*

김 영 혜**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생활양식과 의식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와 청소년이 있는 가구마다 개인용 컴퓨터(PC)를 소지할 정도로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전달되는 정보량은 천문학적이며 특히 성을 상품화한 인터넷이나 각종 대중매체를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전달되는 성 정보가 전통적인 성 개념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폭력적이다. 실제로 작년 한해동안에는 성폭행에 의한 여중생의 교실 내 출산이 여러 건 있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해외로 입양되는 아동 중 미혼모의 자녀가 83.8%로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성폭력피해자의 80.8%가 20세미만의 미성년자들이고 성범죄 발생비율이 세계 3위였으며 청소년의 79.4%가 컴퓨터음란물의 접촉경험이 있고 46.3%가 출판음란물에 노출되어 있다(김영혜, 2000). 더욱이 그 내용이 폭력을 정당화하고 관용하거나 여성비하 내지 적대적인 남녀차별주의를 나타낼 때 남자청소년의 성행동이나 성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것이 성폭력으로 이어진다(석종철, 1999).

그러므로 성폭력 문제에 있어서 주로 가해자에 속하는 남자청소년들로 하여금 바람직한 성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남녀평등의 성역할정체감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며 또한 상대방 여학생의 성적 주체성을 배려하고 인정한 후에 행동으로 보여주는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주로 강의식(56.0%)으로 제공되고 있었으며, 그것도 일부 성교육 관련교사들(국어, 생물, 도덕, 사회 및 체육)에 의해 무계획적으로 이행되고 있었다(이은주, 2000). 강의식 성교육은 다양한 시청각 매체에 의해 길들여진 청소년들의 특성상 흥미유발이 어렵고 특히 성역할정체감이나 성태도와 관련된 주제는 학습평가 면에서 가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규수업시간에 다루기가 쉽지 않다.

미국의 경우, 1940년대 이후부터 교육공학의 개념이 도입되어 특정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구나 매체를 제작하였으나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때는 1950년대 후반이며 주로 학습심리를 응용한 VTR 등의 시청각교재를 활용하기 시작했는데 이 교육방법은 대량교수가 가능하며 피 학습자로 하여금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하고 교수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으며 또한 교수의 과학화가 가능하고 경제성이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나일주 외, 1999; 변영제 외, 1999; 탁성의 외, 1998; 김신자 외, 1999).

이에 본 연구자는 오늘날 시중에 나와 있는 중학교 남학생들을 위한 시청각매체를 분석해 본 결과, 주로 임

* 이 논문은 1997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공모과제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부교수(간호과학연구소)
 투고일 8월 21일 심사일 9월 6일 심사완료일 12월 4일

신과 출산과정에 관한 생리교육용 교재였고 그 외에 사회적 성 개념에 대한 것으로는 '성과 법률', '우리가 알아야 할 성폭력'이 전부였다. 더욱이 성태도나 성역할정체감을 다룬 교재는 전혀 없었고 남녀성평등을 다룬 것은 초등학교생용의 '짜없는 짜짓기'와 '두개의 반쪽'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한국청소년을 위한 성교육용 시청각프로그램을 제작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바람직한 성행동의 구현을 위한 성태도와 양성적인 성역할정체감을 목표로 정한 후 한국의 교육적, 문화적 수준을 고려하여 '건강한 우리의 성'이라는 타이틀의 VTR교재를 제작하게 되었으며 연구대상 청소년에게 시청하게 한 후에 교육적 효과 즉 양성적 성역할정체감과 바람직한 성태도의 변화양상을 분석하고자 유사실험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기설

제1가설: 시청각교재(VTR)를 시청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성역할정체감의 양성성 점수가 높을 것이다.

제2가설: 시청각교재(VTR)를 시청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성역할정체감 유형분포 상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제3가설: 시청각교재(VTR)를 시청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성태도 점수가 높을 것이다.

II. 문헌 고찰

1. 성역할정체감(Sex Role Identity)의 형성

지금까지 인류학, 사회학, 여성학분야에서 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남녀차이는 생물학적인 측면보다 사회문화적 측면과 더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김영희, 1994). 최근에 와서 간호학에서도 청소년의 성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개인의 성에 대한 태도와 행동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의 의문으로부터 출발하여 성지식, 성행동 및 성태도에 대한 연구(김준호, 2000; 김혜숙, 1997; 박상경, 1996; 정은자, 2000; 조미경, 2000)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나 성역할이나 성역할정체감에 대한 연구(김영희, 1998; 장병순, 1999)는 매우 부족하였다.

개인은 초기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남성, 여성이라는 성별정체감을 가진 뒤 그 개인이 속한 문화권에서 적합

하다고 규정된 일련의 가치관과 특성을 정형화해 가는데 이를 가리켜 성역할사회화과정(Sex Role Socialization)이라고 부른다(윤진, 1981). 그러나 정체성의 발달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과정으로 특히 청소년기 초기에는 정체성 혼미에 빠지기 쉽고 이성과의 관계형성을 일망하는 이성지향성이 확립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교육적으로 잘 활용하면 청소년 자신의 성적 모호성은 감소되고 새로운 형태의 성역할정체감을 획득할 수 있다(송명자, 1995; 장휘숙, 1999). 길리건에 의하면 남성과 여성은 그들의 성역할정체감에 따라 도덕적 문제에 접근하는 차이를 나타낸다고 주장했으며 남성성 지향과 여성성 지향이 통합될 수 있을 때 최상의 인간다움이 발휘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장휘숙, 1999, 재인용). 따라서 정부와 학계에서는 인간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효율적인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성역할의 재구조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양성성(androgyny)의 개념을 제시하였다(교육부, 1999). 그렇지만 부모들의 경우, 자녀들이 집안에서 성역할의 재구조화 작업을 어떻게 이루어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방향을 잡지 못하고 심지어 학교의 양성주의적 성역할과 역행하는 가부장적 성역할의식을 심어주고 있었다(김영희, 1998-b).

개인에게 나타나는 성역할 형태는 성역할정체감의 유형에 의해 규정되고 Sex Role Inventory로서 측정될 수 있으며 남성성, 여성성, 양성성, 미분화형으로 구분되어 있다. 남성성정체감은 한국사회에서 남성다운 특징으로 인정되고 있는 특성 즉 적극성, 활동성, 성취지향성, 독립성, 공격성, 경쟁성, 자기신뢰, 주도력, 통솔력, 지배성, 권위지향성, 야망성, 등의 요인들로 구성된 남성성변인의 점수는 높고 여성성변인의 점수는 낮으며, 여성성정체감은 양육성, 순종성, 의존성, 민감성, 동정성, 변덕스러움, 애교심, 질투심, 말이 많음, 쉽게 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여성성변인의 점수는 높은 데 비해 남성성변인의 점수는 낮으며, 양성성정체감은 한 개인 안에서 남성성의 특성과 여성성의 특성이 통합되어 남성적인 동시에 여성적이고 도구적인 동시에 표현적일 수 있어 두 변인의 점수가 모두 높은 경우에 해당한다. 끝으로 미분화정체감은 남성적, 여성적 특성 중 어느 한쪽도 제대로 표현되지 않으며 두 변인의 점수가 모두 낮은 경우이다(김영희, 1994; 교육부, 1999).

성숙한 사람일수록 양성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인간의 유전인자가 양성을 모두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지만 사회화습이론가들에 의하면 성의 특질은 유전 가능성보다는 사회화과정에서 발달되는 부분인

많다고 한다. 양성적 유형의 아동은 독립적이며 자기주장적인 남성적인 특성과 민감하고 온정적인 여성적 특성을 고루 공유하고 있으므로 현대사회에 적응도가 높았고 또한 양성적 유형의 아동과 청소년은 자아존중감이 높고 또래집단에서의 인기도가 높았다(최순남, 1997).

2. 청소년의 성행동 및 성태도의 변화

1996년 세계여성대회 실무위원회에서 “청소년도 성을 누릴 권리가 있는 성적 주체”로 인정하고 이를 위해 성교육의 의무를 명시하는 행동강령을 선포하였다. 청소년의 성행동이란 이성교제, 자위행위, 가벼운 신체적 접촉, 키스와 애무, 성교 등을 포함하지만 지금까지 청소년들은 “성에 대해 모르는 것이 약”이라는 관념으로 일관된 학부모의 입장과 크게 달라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김기환, 1998). 청소년의 성 태도 연구는 King, Balswick & Robinson(1977)에 의해 보고되어 1965년 남자청소년의 35%, 여자의 56%가 성행위를 비도덕적으로 느낀다고 했으나 1975년에는 남자 19.5%, 여자 30.1%만이 비도덕적으로 느낀다고 응답하여 해마다 청소년의 성태도가 개방적으로 변하였으며, 또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성 자유를 더 허용한 반면에 여학생들은 남학생보다 성교 후 죄책감을 많이 느낀다고 보고하였다(Schalm, Levin, 1997).

한국청소년의 성 태도에 대한 개방성도 미국의 경우와 비슷하여, 1984년 한국여성개발원조사에서 15-19세 남학생의 16.2%, 여학생의 7.5%가 성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996년 서울시부녀복지연합회의 보고에 의하면 15세-19세 미혼모의 첫 성경험율이 1984년의 46.9%에 비해 63.3%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저연령화하고 있고, 1997년 한국성문화연구소의 조사대상 청소년 대부분이 이성친구를 갈망했으며 키스와 애무 정도를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남자중학생의 11.0%가 성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의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인은 음란매체 접촉정도, 비행친구와의 접촉정도, 학업성적, 사회경제적 지위 및 부모의 통제적 태도 등이었다. 특히 부모가 자녀들을 얼마나 통제하느냐에 따라 성 허용이 다르게 나타났다(조미경, 2000).

I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설계, 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한국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시청각프로그램 개발”의 일환으로 남자중학생의 성역할정체감 형성과 올바른 성태도함양을 위해 제작된 VTR 매체(“건강한 우리의 성”)를 이용하여 성교육을 실시한 후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유사실험연구(Non-Equivalent Control Group Post-test Only Design)이다. 대상자는 부산 시소재 6개 교육구청별로 무작위 층화추출(randomized stratified selection)하여 선정된 남자중학생 530명이었으며 이는 연구도구의 문항수를 고려하여 결정된 대상자 수이며 대상자의 연령을 중학교 1-2학년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3학년에 비해 상급 학교로의 진학스트레스가 적을 뿐만 아니라 학교 당국의 허가가 용이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이 시기가 성역할정체감이나 성태도의 형성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보았기 때문이다(김혜숙, 1997; 송명자, 1994; 장휘숙, 1999).

2.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컴퓨터음란물 관련특성을 포함하여 구조화된 두 개의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첫째, 성역할정체감을 측정하는 도구는 한국성역할정체감도구 ; Korea Sexual Role Inventory(김영희, 1994)를 이용하여 각각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형 및 양성성의 점수를 구한 후 성역할 유형을 분리해 냈으며 전체 문항 40개 중 남성성 문항과 여성성 문항이 각각 15개이며 양성성 문항은 10개로 구성되었으며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7점으로 측정하되 합산한 개별항목의 점수가 많을수록 해당 성역할의 성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개발 당시 KSRI의 신뢰도계수(Cronbach α)는 .69-.86이었으며 본 연구결과에서는 .8767이상이었다.

둘째, 성행동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도구는 성태도 측정도구(Walter W. Hudson, et al., 1990)이며 이는 총 2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강하게 부인한다’ 1점, ‘부인한다’ 2점, ‘동의도 부인도 할 수 없다’ 0점, ‘동의한다’ 3점, ‘강하게 동의한다’ 4점으로 측정하였고 2개 문항은 역산하였다. 성태도는 총점(100점)에 따라 성행동의 보수 내지 진보성향을 구분하므로 총점이 50점보다 낮으면 자유로운 성태도를, 반대로 50점보다 높을 때는 보수적인 성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개발당시 성태도측정도구의 신뢰도계수(Cronbach α)는 .90이상이었고 내용, 구성타당도 계수는 .60이상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계수(Cronbach α)는

.8746 이상이었으며 성 경험이 있는 소년원생 100명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 준거타당도가 .6965로 나타났다.

3. 성교육 시청각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1) 사전조사 연구의 수행

먼저, 중등학교 교사, 학부모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적주체성 및 성역할 인식에 관해 조사한 후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지도 내용에 관하여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며 또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가르쳐야 하는지 교육자(학부모)와 피교육자(청소년)를 대상으로 확인하였다. 그 결과 교사와 학부모의 경우, 인권교육, 처치교육, 양성평등, 사랑, 건강한 삶 등에 관하여 높은 요구도를 보였으며 청소년의 경우에는 어른들에 비하여 성교육 요구도가 낮았으나 평균 이상의 높은 요구도를 보인 항목은 소중한 생명, 건강한 삶, 성폭력, 인권교육, 결혼관, 사랑, 몸의 청결 등이었다(김영혜, 1998-a; 김영혜, 1998-b).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사전 두 편의 연구를 통하여 사춘기 소년들에게 요구도가 높은 “건강한 성”을 주제로 인권교육, 양성평등사상 및 사랑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여 궁극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양성적 성역할정체감을 심어주고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 바람직한 성행동의 구현을 목표로 하였으며 남자중학생들이 자율학습 및 특별시간을 이용하여 시청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성적 태도 및 성역할정체성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2) 바람직한 성행동에 초점을 둔 본 성교육프로그램의 내용

첫째, 인생관의 확립(평균수명의 연장과 건강유지증진 개념), 둘째, 남녀평등사상과 양성성의 성역할정체감 확립(형광등을 갈아 끼우는 어머니와 설거지하는 아버지의 실행장면), 셋째, 사랑, 결혼, 책임 및 의무(중학생 자녀를 둔 가정집 장면), 넷째, 남녀의 성 생리 및 육구이론의 신화(신경경신과 교수의 인터뷰)와 자위행위시 위생교육(본 연구자의 시범장면), 다섯째, 사회와 성, 인간의 이타적인 성 행동과 성 태도형성(성폭력상담소 소장 인터뷰)을 목적으로 하였다.

3) 성교육 시청각교재의 개발과정

- (1) 한국 문화권에 적합한 중학생용 성교육내용 및 지도방안을 전문가 집단과 논의한 후에 25-30분 분량의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 (2) 시나리오에 의거 VTR 화면제작용 스토리보드를 작성하였다.

- (3) 스토리보드가 제시한 나레이션에 따라 남자중학생용 바람직한 성행동을 위한 성교육VTR을 제작하였다.

- (4)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제출할 VTR과 CD-ROM을 최종 완성하였다.

4) 실험처치(VTR 프로그램의 소개 및 시청)후 효과 측정

본 연구자는 “한국청소년을 위한 성교육프로그램” 중에서 우선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양성적 성역할을 심어주고 더 나아가 한국문화에 적합한 성행동을 목적으로 “건강한 우리의 성”이라는 타이틀로 VTR을 제작하고 이를 남자중학생들에게 자율학습시간을 이용하여 짧은 시간만 할애해도 자신의 성역할의식 또는 성행동에 대한 태도를 상기시킬 수 있다고 사료되어 그들에게 시청하게 한 후 시청각교재(VTR)의 효과 즉 양성적 성역할유형과 성태도의 변화양상을 측정하고자 비동등성 단일사후측정 유사실험연구를 시도하였다.

(1) 제1차 처치: 성교육 시청각프로그램의 소개

제1차 교육은 학교당국의 요청에 따라 연구 대상자들의 면학분위기를 고려하여 봄방학시작 전 1주일간(2,000.2.16-22)을 이용하였으며 연구목적에 따라 자율학습시간을 이용하였으며 연구자가 직접 교실에 들어가 청소년기 동안에 이룩해야 할 성 발달과업(부록 1 참조)에 대해 소개하면서 오늘날 청소년의 성행동 문제들을 간단한 표와 수치로서 제시하고 성교육의 7개 영역 중 가장 우선적으로 확립되어야 할 과업은 가부장적 성역할정체감에서 벗어나 양성적인 성역할정체감을 형성하고 또한 남녀차별이 없는 평등한 인간관계를 기본으로 성적 행동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남성의 성 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성 문제(성희롱, 성폭력, 십대임신, 미혼모 등)를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보수적인 성 태도를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한 후 앞으로 일주일 이내에 “건강한 우리의 성”이라는 제목의 VTR을 감상하게 될 것이라고 알렸다. 이 때 소요된 시간은 약 30분이었다.

(2) 제2차 처치: 성교육 시청각프로그램(VTR)의 시청

제2차 교육은 “건강한 우리의 성”이라는 VTR을 제작하게 된 배경을 설명한 후 1주일의 간격을 두고 각 학급담임교사에 의해 교실에서 TV모니터를 통하여 시청하게 하였다. 이때 담임교사의 역할에 따라 성역할정체감

및 성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연구자가 지시한 절차대로만 설명할 것을 사전 합의함으로써 내적 타당도를 위협할 수 있는 조건을 통제하였다. VTR을 보여주고 난 직후 교실에서 설문지(SAS, KSRI)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시청각프로그램 제공시간과 설문지 응답시간을 모두 합하여 총 1시간 이내로 하였다. 단 실험군대상자에게는 오늘 시청한 “건강한 우리의 상” VTR이 자신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5등급 등간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한편, 대조군에게도 자율학습시간에 학급담임교사에 의해 설문지(SAS, KSRI)를 배부하였으며 현장에서 회수하였다.

4) 자료분석 방법

자료의 분석은 SPSS WIN을 이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백분율과 빈도로 나타내었고,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동질성은 Chisquare test, t-test, ANOVA로 분석하였다. 성역할정체감의 형태는 양성형, 남성형 및 여성형으로 구분하여 평균값을 도출한 후 집단간의 차이는 t-test로 하였으며 여성적 정체감의 경우, 남성점수가 40 percentile이하이고 여성점수가 40 percentile이상인 자를 선택하였고, 남성적 정체감의 경우, 여성점수가 40 percentile이하이고 남성점수가 40 percentile이상인 자를 선택하였고, 양성적 정체감은 양쪽 성 모두 40 percentile이상인 자를 선택하였으며 미분화형은 어느 분류에도 들지 않는 자를 선택하여 Chisquare test로서 분석하였다. 성 태도의 차이는 최저 25점에서 최고 100점까지 분포된 것을 평균과 t-test로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컴퓨터 관련특성 및 집단간의 동질성 검증

본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 컴퓨터 관련특성 및 대상자의 동질성을 검증한 결과,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먼저, 학년별 분포는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2학년이 53.6%, 50.9%로서 과반수이상을 차지하였고 중교 분포에서는 두 집단 모두 불교가 49.4%, 42.3%로서 가장 많았으며 가족 수는 평균 4.13명이었으며 주로 핵가족형태를 취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거주 대상자가 58.9%와 49.1%를 차지하였으며 아버지의 직업분포에서는 상업 또는 사업을 하는 대상자가 두 집단 모두 25.3%와 21.9%로서 가장 많았으며

교육정도에서도 고졸이 57.7%와 37%로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컴퓨터관련특성으로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대상자 모두 자신의 집에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81.1%와 86.4%로서 매우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김영혜(2000)연구의 78.7%보다는 약간 높았으나 김혜옥(1998)의 58.2%보다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PC통신 여부에서도 두 집단 모두 51.2%와 54.6%에서 통신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김영혜(2000)의 62.9%보다 낮았고 김혜옥(1998)의 25.3%보다는 매우 높았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사회의 컴퓨터 보유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부모님의 컴퓨터 사용여부에 대한 응답결과는 두 집단 모두 ‘아니오’로 응답한 대상자가 73.6%와 68.3%를 차지하여 부모들의 컴퓨터 활용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두 집단 모두 PC방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4.3%와 52.1%를 나타내었으며 심지어 음란물접촉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비율도 두 집단 모두 75.5%와 76.2%를 차지하여 청소년의 음란물 접촉실태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김영혜(2000)의 결과에서도 연구대상의 79.4%가 음란물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컴퓨터관련특성의 동질성을 검증한 결과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두 집단이 유사집단임을 확인하였다.

2. 연구 집단간의 성역할정체감에 대한 차이검정

“상교육 시청각교재(VTR)를 시청한 실험군은 시청하지 않은 대조군 대상자보다 양성성의 점수가 높을 것이다(제1가설)”를 검증한 결과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영가설이 기각되었다(t=3.02, p=.001). 따라서 제1가설은 채택되었으며 본 연구자가 개발한 시청각 상교육 프로그램을 시청한 실험군 대상자의 성역할정체감이 양성성을 띄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밖에 여성성과 남성성의 점수 차를 비교한 바에 의하면 여성성의 경우, 실험군이 4.08점으로서 대조군 3.90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나(t=2.78, p=.006), 남성성의 경우는 실험군 대상자가 4.30점으로서 대조군 4.45점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t=-1.99, p=.046).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동질성 검증

N=530

특성	구분	실험군 n 265(%)	대조군 n 265(%)	χ^2	p
연령	14세	123(46.4)	130(49.1)	1.71	.187
	15세	142(53.6)	135(50.9)		
	무	84(31.7)	83(31.3)		
종교	불교	131(49.4)	112(42.3)	1.14	.380
	기독교	37(14.0)	45(17.0)		
	천주교	6(2.3)	20(7.5)		
	기타	7(2.6)	5(1.9)		
가족수 (평균가족수 4.13명)	2명	2(0.8)	3(1.2)	3.88	.567
	3명	30(11.3)	34(12.8)		
	4명	168(63.4)	178(67.2)		
	5명	46(17.4)	38(14.3)		
	6명	19(7.2)	12(4.5)		
가족형태	핵가족	241(90.9)	249(94.0)	1.73	.188
	대가족	24(9.1)	16(6.0)		
	단독	50(18.9)	77(29.1)		
주거형태	아파트	156(58.9)	130(49.1)	2.38	.206
	다세대	46(17.4)	35(13.2)		
	기타	13(4.9)	23(8.7)		
	전문직	10(3.8)	19(7.2)		
부친 직업	기술,기능직	56(21.1)	55(20.8)	2.23	.330
	회사원	46(17.4)	55(20.8)		
	가내공업	9(3.4)	3(1.1)		
	일반공무원	14(5.3)	13(4.9)		
	군인,군속	2(0.8)	2(0.8)		
	상업,사업	67(25.3)	58(21.9)		
	농,어,축산	4(1.5)	1(0.4)		
	교원,교사,강사	1(0.4)	12(4.5)		
	금융,	3(1.1)	1(0.4)		
	증권,은행원	42(15.8)	31(11.7)		
	기타	11(4.2)	15(5.7)		
	무직	11(4.2)	27(10.2)		
	대학원이상	48(18.1)	91(34.3)		
	대졸	12(4.5)	13(4.9)		
	전문대졸	153(57.7)	98(37.0)		
고졸	41(15.5)	49(12.2)			
중졸이하	215(81.1)	229(86.4)			
컴퓨터 유무	예	50(18.9)	36(13.6)	2.72	.099
	아니오	110(51.2)	125(54.6)		
가정에서의 통신여부	예	105(48.8)	104(45.4)	.52	.470
	아니오	(N 215)	(N 229)		
PC방 이용경험 여부	예	144(54.3)	138(52.1)	.27	.601
	아니오	121(45.7)	127(47.9)		
부모님의 PC사용 여부	예	70(26.4)	84(31.7)	1.79	.180
	아니오	195(73.6)	181(68.3)		
음란물 경험여부 (비디오, CD-ROM)	예	200(75.5)	202(76.2)	.04	.839
	아니오	65(24.5)	63(23.%)		

따라서 본 연구자가 개발한 시청각성교육프로그램을 시청한 남자중학생의 경우, 여성성 점수가 높은 데 비해 남성성 점수는 낮았다. 이는 본 연구에 사용된 성교육시

청각프로그램이 양성적인 성역할정체감형성에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사료되며 아울러 본 VTR의 성역할정체감형성에 대한 교육적 효과가 입증되었다.

<표 2> 대상자간의 성역할정체감 차이

N=530

특 성	실험군(n 265) M±SD	대조군(n 265) M±SD	t	p
양성성	4.95±.70	4.08±.83	.302	.001
남성성	4.30±.82	4.45±.91	-1.99	.046
여성성	4.08±.81	3.90±.67	2.78	.006

<표 3> 대상자간의 성역할정체감유형 분포 상의 차이

유형 분포	실험군 n 265(%)	대조군 n 265(%)	X ²	p
양성형	80(30.2)	52(19.6)	9.416	.052
남성형	52(19.6)	85(32.1)		
여성형	31(11.7)	27(10.2)		
분화형	102(38.5)	101(38.1)		

<표 4> 연구대상자간의 성 태도점수 차이

N=530

내 용	실험군(N 265) M±SD	대조군(N 265) M±SD	t	p
성 태도	44.21±11.76	43.37±12.93	.59	.553

3. 연구 집단간의 성역할정체감유형 분포에 대한 차이검정

“성교육시청각교재(VTR)를 시청한 실험군은 시청하지 않은 대조군 보다 성역할정체감유형의 분포가 다를 것이다(제2가설)”를 검정한 결과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군의 경우, 양성형이 30.2%, 남성형이 19.6%, 여성형이 11.7%, 미분화형이 38.5%로 나타났고 대조군의 경우, 양성형이 19.6%, 남성형이 32.1%, 여성형이 10.2%, 미분화형이 38.1%로 나타나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영가설이 기각되었다($\chi^2=9.416, p=.052$).

따라서 제2가설은 채택되었으며 본 연구자가 개발한 시청각 성교육프로그램을 시청한 실험군의 성역할정체감유형 분포가 대조군에 비해 남성성을 띄는 비율(19.6%)은 줄어든 데 비해 여성성(11.7%)과 양성성(30.2%)을 띄는 대상자가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한 성교육시청각프로그램이 연구대상자들의 성역할정체감에서 남성성을 약화시킨 반면에 양성성을 강화시켰다. 그러나 Bem등(송명자, 1995)은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약 33%는 자신의 성과 일치하는 성 유형 즉 남성적 유형과 여성적 유형으로 나타났고 약 30%는 양성성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는 미분화되었거나 자신의 성과 일치하지 않았다고 보고했으며,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Boldizar, 1991)에서는 8-11세 아동의 약 27~32%

가 양성적 유형으로 밝혀졌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이 본 연구결과와 차이를 나타내어 주목할 필요가 있었는데, 특히 미분화형이 38.1%로서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은 본 연구대상의 14-15세 남자중학생들이 지금 한창 성역할유형이 고정되는 사회화과정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김형태(1989)는 중학생의 54%가 정체성의 혼미를 경험한다고 했고 서구에 비해 정체성 발달수준이 낮다고 했으며 서봉연(1975)에 의하면 우리 나라 남녀학생이 14세에서 17세 사이에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보아 이 시기야말로 성역할정체감을 양성적으로 형성시켜주는 성교육프로그램이 많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4. 연구 집단간의 성태도에 대한 차이 검정

본 연구자가 개발한 “성교육 시청각교재(VTR)를 시청한 실험군은 시청하지 않은 대조군 보다 성태도의 점수가 높을 것이다(제3가설)”를 검정한 결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제3가설은 기각되었다($t=.59, p=.553$). 즉 본 연구자가 제작한 시청각 교재가 연구대상자들의 성 태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비록 집단간에 차이는 없었지만 대상자 모두 성태도점수(SAS)가 평균 43.83점과 43.19점으로 나타나 성행동에 대한 태도가 매우 자유롭고(liberal) 개방적임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의 성태도에 관한 연구는 King, Balswick & Robinson(1977)에 의해 10여 년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성태도를 사정한 결과 1965년에는 남자청소년 응답자의 35%, 여자의 56%가 성행위를 비도덕적으로 느낀다고 응답했으나 1975년에는 남자 19.5%, 여자 30.1%만이 그렇게 느낀다고 응답하여 해마다 성태도가 개방적, 긍정적으로 변하였으며 특히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더 많은 성적자유를 허용하였으나 여자청소년들은 혼전성교 후에 죄책감을 느꼈다(Schalm & Levin, 1974). Zabin, et. al.(1984)에 의하면 3,500명의 중고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남학생의 32%, 여학생의 39%에서 혼전 성교가 나쁘다고 응답했으며 성교 경험이 있는 대상자중에서도 25%에서 혼전 성교가 좋지 않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십대여학생의 성경험율은 1970년대에는 40%, 80년에는 56%, 88년에는 70%로 증가하였고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더 높다고 알려져 있다(Moore & Rosenthal, 1993). 한국성문화연구(1997)가 전국적으로 중고생 3,000명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남자고등학생의 17.6%, 여자고등학생의 5.5%, 남자중학생의 11.0%, 여자중학생의 3.5%가 성교를 했다고 응답했다. 무엇보다도 조사대상 남녀청소년들의 대부분이 이성친구를 가지기를 원했고 키스와 애무정도는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성문화연구소, 1997).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의 성태도는 개방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하지만 국내의 성태도에 대한 선행연구들(계수연과 문인숙, 1999; 김현경, 김미영, 양경미, 임미림, 1999; 정은자, 2000; 최혜영, 1998; 한유정과 박인혜, 1996)에 의하면 성교육을 실시한 후 지식이나 태도 측면에서 연구자가 의도한대로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선행연구의 결과들이 본 연구와 상이한 차이를 보인 것은 선행연구에서의 성태도 측정도구가 신체적, 생리적, 심리적, 윤리적, 사회·문화적인 면에서의 인지도를 측정하는 수준이었으므로 성행동에 대한 태도가 자유성이나 개방성을 묻는 SAS와는 달랐기 때문이며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성태도측정도구가 개발당시 성인의 성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것을 본 연구자가 청소년의 이해수준에 적합하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사료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한국청소년의 성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개발을 제안하며 이로써 성행동의 개방성을 미리 예측할 수 있고 성폭력이나 성문제의 고위험군을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성태도의 개방성에 따라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5. 성교육프로그램 시청 후의 반응

다음은 실험군 대상자 265명을 대상으로 “건강한 우리의 성”을 시청한 후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반응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체의 11.7%가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고 32.8%는 ‘약간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여 전체의 44.5%가 성교육 시청각교재에 대하여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14.3%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10.2%에서는 ‘대체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대상자도 24.5%나 있었다.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있었던 것은 그들의 성교육에 대한 요구수준이 본 연구자가 개발한 VTR매체보다 높았거나 요구하는 내용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표 5> “건강한 성” 비디오 시청에 대한 반응

N=265		
반응 정도	n	%
매우 도움이 되었다	31	11.7
약간 도움이 되었다	87	32.8
잘 모르겠다	82	30.9
대체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27	10.2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38	14.3

V. 논 의

첫째, 본 연구자가 개발 사용한 VTR매체(시청각교재)가 실험군 남자중학생으로 하여금 양성성의 점수와 여성성의 점수는 높게 나타난 반면에 남성성의 점수는 대조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성역할정체감의 유형분포에서도 실험군은 여성성의 정체감을 가진 유형의 비율이 11.7%로서 대조군의 10.2%보다 많았으며 남성성의 정체감을 가진 유형의 비율이 19.6%로서 대조군의 32.1%에 비해 적었으며 특히 양성성의 정체감을 지닌 유형의 비율은 30.2%로서 대조군의 19.6%보다 훨씬 많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된 시청각교재는 성역할정체감을 양성적으로 형성하게 하는데 효과가 입증되었다. 양성적성역할이란 바람직한 여성적 특성과 바람직한 남성적 특성이 결합되어 공존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양성적인 사람은 여성적인 행동과 남성적인 행동을 융통성있게 수행함으로써 더

욱 다양한 행동을 수행해 낼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유연한 반응을 보이며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양성성은 아주 탄력적인 성역할정체성이라 말할 수 있고 수많은 사회적 상황에서 유연성을 확보해주는 기능을 가져다준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의 성역할정체감에 관한 연구는 외국에서 많이 이루어져, Feldman and Alto(1996)의 사춘기아동을 대상으로 성역할정체성과 성발달을 연구한 바에 의하면 사춘기의 성적발달은 性的 감정의 전이 또는 역전이를 통한 일련의 메트릭스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발달과정에 개입하여 성역할정체감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는 지금까지 남성이 주도해 온 남성권위주의 사상에 대하여 인간 평등을 바탕으로 페미니즘운동이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 자신의 성역할정체감을 어떻게 형성하고 인식시켜 나가느냐에 따라 성행동의 특징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정과 학교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정신에 따라 지도방향을 정하고 바람직한 성역할정체감을 주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진다. 특히 날마다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성문제는 잘못 형성된 성역할정체감으로 인해 상대방과 합의를 도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성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더욱이 남자청소년의 경우 남성성의 성역할정체감이 지나치게 발달할 때, 성행동을 실천함에 있어서 이상에 대하여 합의나 동의를 구하기 전에 힘이나 압력을 행사하여 성행동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김기화, 1998).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성교육 시청각 프로그램은 남자중학생들로 하여금 미래 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성주의시대에 적합한 양성적인 성역할정체감을 형성시켜주는 데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했다.

둘째, 본 연구자가 개발 사용한 VTR 교재가 연구대상 청소년의 성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는 기여하지 못했다. 이렇게 남자중학생들의 성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는 청소년들의 성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시청각 교재에 의한 성교육 외에도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결과이므로 앞으로 청소년의 성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윤정 외(1998)의 연구에서는 성에 대한 정보제공, 지식제공은 청소년의 성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또한 성교육프로그램이 성에 대한 지식의 수준과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최혜영,

1998; 정은자, 2000)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 연구에서 성태도 측정도구가 SAS와 달랐으며 이들 도구는 성태도를 측정하는 도구라기보다는 성적 지식을 측정하는 도구에 가까운 것으로 사료되었다. 국외의 경우, Aten et. al.(1996)에 의하면 보건교육을 받은 도시청소년은 교육을 받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성적 문제해결, 위험한 성적 경험, 건강관리, 콘돔사용 등에 대하여 자기 효율성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성교육이 성태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는 등 상이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성교육 방법이나 교재 등 여러 요인들이 작용했겠지만 본 연구자의 생각은 성 태도 측정도구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었다. 본 연구자가 사용한 SAS(Sexual Attitude Scale)는 성행동에 대한 진보성과 보수성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총 100점 만점에서 50점보다 낮으면 자유롭고 진보적인 성태도를 지닌 것으로 해석하고 반대로 50점보다 높으면 보수적인 성태도를 지닌 것으로 해석하는 도구로서 이는 1992년에 Hudson과 그의 동료들이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것을 중학교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 경험이 풍부한 일 선원생들을 대상으로 준거타당도를 측정한 결과 .6965로 나타났지만 SAS가 각종 성적 행동 및 행위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성 경험 유무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집단간에는 성태도의 점수가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두 집단 모두 성태도 점수가 각각 43.83점과 43.19점으로서 50점을 넘지 못하여 남자중학생의 성 행동에 대한 태도가 상당히 개방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앞으로 청소년의 성 행동을 자극할만한 조건이 주어진다면 그들이 성행동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으며 실제로 한국성문화연구소(1997)의 자료에 의하면 조사대상 청소년의 48.4%가 이성친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었고 76.3%에서 가벼운 신체접촉을, 21.3%에서 키스, 애무, 성교와 같은 적극적인 성행동을 시도하고 있었다. 김형균과 오재환(1996)의 보고에 의하면 조사 여대생의 34.7%가 혼전성교를 찬성하고 있었으며 양성희(1983)의 경우도 조사대상 청소년의 혼전성관계(70.3%)나 혼전임신(48.9%)에 대한 태도가 있을 수 있다는 식이었으며 박충선과 한유정(1997)의 조사대상 남자중학생들의 이성교제비율이 37.9%에 달하였다.

한편, 청소년의 성 태도는 어떻게 형성되며 이 과정 동안에 어떤 간호중재를 제공해야 바람직한 성 태도를 형성시킬 수 있을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의 성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바, 성 지식이나 성 정보의 입수경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음란물 접촉 관련 특성 및 가족간의 의사소통의 양과 질 등 여러 가지가 보고되어 있었다(Mckelvey et al., 1999; DiIorio et al., 1999). 그리고 성태도는 성 행동과 관련이 있는 변수로 알려져 있었다(Huerta and Malacara, 1999). 또한 성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입수하느냐에 따라 성 반응이 달랐으며 누구와 의사소통을 하느냐에 따라 성 태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예컨대, 성 정보를 음란사진을 통하여 얻는 경우에는 다른 동영상들에 비해 혐오감의 수치가 훨씬 높았으며 학년에 따라 성 지식 및 태도의 정도가 달랐으며(김혜옥, 1997), 음란매체의 활용이나 성적가치관에 따라 자위행위빈도와 혼전 성관계의 태도가 다르게 나타났다(김형균과 오재환, 1996). 뿐만 아니라 초기 청소년들은 부모님보다 친구들과 성을 주제로 하여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으며 성적 가치가 개방적일수록 첫 성교시기가 빨랐으며 남학생의 경우, 모친보다 부친과 성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다(DiIorio et al., 1999)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청각 매체가 남자 중학생의 성 태도 변화를 이루어내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첫째, 한 두 차례의 시청각매체를 통한 성교육으로는 성 행동에 대한 태도변화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과 둘째, 청소년의 성 태도를 측정하는 도구가 성 행동에 대한 태도측정도구였기 때문에 초기 사춘기의 남학생에게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연구대상 청소년들의 성 태도가 개방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 성 행동문제의 표출이 우려되며 따라서 성 행동에 대한 사전 예방교육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을 위한 성교육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성역할정체감, 성태도의 변화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1997년 10월 1일부터 2000년 9월 30일까지 부산시내 남자중학생 530명을 6개 학교별로 무작위층화 추

출하여 비동등성 단일 사후측정 유사실험연구를 하였고 통계처리는 SPSS 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연구가설의 검정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자가 제작한 성교육 시청각교재를 시청한 실험군의 남자중학생들은 시청하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양성성의 성역할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용 시청각교재가 대상자의 양성적인 성역할정체감의 형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둘째, 성교육용 시청각교재를 시청한 실험군 대상자는 시청하지 않은 대조군 대상자보다 한국형 성역할정체감 유형분포에서 남성성을 띤 대상자의 비율이 줄었으나 여성성과 양성성을 띤 대상자의 수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용 시청각교재가 대상자의 양성성의 성역할정체감 형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셋째, 성교육용 시청각교재를 시청한 실험군 대상자는 시청하지 않은 대조군 대상자보다 성 태도의 점수가 차이를 보이지 않아 영가설이 채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용 시청각교재가 대상자의 성 태도를 보수적으로 변화시키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2. 제언

본 연구에 사용한 시청각교재는 남자중학생의 자율학습시간이나 특활시간을 이용하여 “건강한 우리의 성”(VTR)을 상영함으로써 성역할정체감이 양성적으로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그렇지만 보수적인 성 태도 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기에 두 가지의 제언을 하는 바이다. 첫째, 한국 청소년의 성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개발이 필요하고 둘째, 성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제언한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 (1999). 양성평등학교문화 선생님이 만든다. 학교 성차별개선을 위한 연수자료, 교육부출판.
- 채수연, 문인국 (1999). 성교육 실시에 따른 성지식, 성태도 변화연구,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16(2), 137-155.
- 김기환 (1998). 청소년의 성행위 어떻게 볼 것인가, 아동과 성문제, 제9회 한국아동복지학회학술대회.
- 김신자, 이인숙, 양영선 (1999). 교육공학의 이론과 실제. 문음사.
- 김영희 (1994). 성역할정체감과 학습된 무기력. 서울;

- 정민사.
- 김영혜 (1998-a). 한국 교사들의 성역할 인지, 성교육 요구 및 성교육 의식정도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4(2), 131-146.
- 김영혜 (1998-b). 한국 청소년과 학부모의 성역할인지, 성교육요구에 관한 조사연구. 부모자녀 건강학회지, 1(1), 31-55.
- 김영혜, 이화자, 정향미 (2000). 남자중학생의 컴퓨터 음란물 접촉실태와 접촉반응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6(1).
- 김준호 (2000). 청소년의 성비행실태와 원인. 성교육프로그램개발세미나, 한국성문화연구소.
- 김현경, 김미영, 양경미, 임미림 (1999). 성지식 상태도에 관한 우리 나라 내용 분석, 보건교육 건강증진학회, 16(1), 167-185.
- 김형균, 오재환 (1996). 대중매체접촉과 성적 태도간의 관련성 연구. 사회조사연구, 11(1), 59-73.
- 김형태 (1989).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의 발달 및 측정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옥 (1997). 부산경남지역의 남자중학생의 컴퓨터음란물 접촉실태 및 성태도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일주, 정인성 (1999). 교육공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 문연자 (1986). 메스미디어의 성역할 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란 (1980). 서울시 가족의 역할구조에 관한 연구. 서울: 동국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성익, 강명익, 김동식 (1998). 교육공학연구의 최근 동향. 교육과학사.
- 박상경 (1996). 청소년의 성(이성교제,성행동,성지식,성역할특성, 성교육)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 박충선, 한유정 (1997). 청소년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에 관한 연구. 아동간호학회지, 3(1), 71-82.
- 변영계, 김영환, 손 미 (1999).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서울: 학지사.
- 서봉연 (1975). 자아정체감에 관한 심리학적 일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석중철 (1999). 통계로 본 청소년 상담, 서울 도서출판 한글, 136-162.
- 송명자 (1995). 발달심리학, 서울: 지학사.
- 신세호외 3인 (1987). 한국인의 남성 및 여성 역할관.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양선희 (1983). 일 도시지역 남녀고등학생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의 실태와 성교육요구에 관한 연구. 중앙의학, 44(2), 113-123.
- 오윤정, 김정남, 하숙영 (1998). 일부 중학생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성교육 요구도에 관한 조사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9(2), 467-479.
- 이동원 (1974). 여성의 가외활동에 대한 남녀대학생의 태도조사. 서울: 이대문리대 부설여성자원 개발연구소.
- 이순형 (1983). 고교생의 남녀역할관에 관한 연구. 서울: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주 (2000). 양호교사와 관련교사의 성교육이행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춘하 (1982). 아동문학에 나타난 남녀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이효재 (1978). 여성사회의식. 서울: 평민사.
- 장병순 (1999). 사춘기소녀들의 월경에 대한 태도와 성역할정체감 연구.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휘숙 (1999). 청년심리학. 서울: 학지사, 199-200.
- 정은자 (2000). 성교육프로그램이 남자중학생의 성지식과 성태도에 미치는 효과,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미경 (2000). 여지중고등학생의 성허용성과 성행동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원정, 김진순, 김용순, 서문자 외 (1996). 성교육. 서울: 현문사.
- 최순남 (1997).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서울: 한신대학교 출판부.
- 최혜영 (1998). 중학생의 건전한 성지식 및 태도형성을 위한 성교육프로그램 연구, 부산: 고신대학교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교육개발원편 (1977). 한국인의 남녀역할관.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명희 (1983). 국민학교 어린이의 성역할 의식과 교육의 과제. 동국대논문집 22권. 서울: 동국대학교.
- 한유정, 박인혜 (1996). 성교육이 중학생의 성지식과 성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학교 간호과학논집, 1, 23-40.
- Alvarez M et. al. (1990). Sex Information of Adolescents according to Sex. Rev. Clin. Pediatr., 61(2), 102-108.
- Aten, M.J., Siegel, D.M., Roghmann, K.J. (1996). Use of health services by urban

- youth: A school based survey to assess differences by grade level, gender, and risk behavior, J. Adolescence Health, Oct., 19(4), 258-66.
- Boldizar, J.P. (1991). Assessing sex-typing and androgyny in children's sex-role inventory. Dev. Psycho., 24, 684-689.
- Creatsas, G. et. al. (1991). Teenagers Pregnancy. Jour. Adolescent Health, 12(2), 77-81.
- DiIorio, C., Kelley, M., Hockenberry, E.M. (1999). Communication about sexual issues: mothers, fathers, and friends. J. Adolescence Health, Mar., 24(3), 181-9.
- Feldman, B., Alto, P. (1996). Identity, sexuality and the self in late adolescence, J. Anal. Psychology, Oct., 41(4), 491-507.
- Felizari, G.M. (1990). School nursing and sex education for adolescents. Rev. Gaucha Enferm, Jul, 11(2), 12-9.
- Gordon, C.P. (1996). Adolescent decision making: a broadly based theory and its application to the prevention of early pregnancy, Adolescence, Fall, 31(123), 561-84.
- Gruen, S.M. et. al. (1991). Setting Up a School-based Sexual Education Program. Nurse Pract., 16(8), 47-51.
- Hajcak, F., Garwood, P. (1988). Quick-fix Sex: pseudosexuality in adolescents. Adolescence, Winter, 23(92), 755-60.
- Hernann, B., Egger, M., Low, N. et. al. (1995). Sexual education for Adolescents. The Lancet, 345(8953), 860.
- Hudson, W.W., Murphy, G.J., Nurius, P.A., A short form scale to measure liberal vs conservative orientations toward human sexual expression. The J. of Sex Research, 19, 258-272.
- Huerta, F.R., Malacara, J.M. (1999). Factors associated with the sexual experiences of underprivileged Mexican adolescents. Adolescence, Summer, 34(134), 389-401.
- Mckelvey, R.S., Webb, J.A., Baldassar, L.V., Robinson, S.M., Riley, G. (1999). Sex knowledge and sexual attitudes among medical and nursing students. Aust. N.Z.J. Psychiatry, Apr., 33(2), 260-6.
- Moore, S., Rosenthal, D. (1993). Sexuality in Adolescence, Routeledge, London and N.Y.
- Roberts, S.S, Allen, D.F., Jekel, J.F. (1984). Teenager pregnancy in the Bahamas: trends and characteristics. Yale. J. Biol. med. May-Jun, 57(3), 273-81.
- Ryan, S.A., Milstein, S.G., Irwin, C.E. (1996). Puberty questions asked by early adolescents: What do they want to know?, J. Adolescence Health, Aug., 19(2), 145-52.
- Shen, J.T. (1982). Adolescent Sexual Behavior. Postgrad Med. Apr., 71(4), 46-8, 54-5.
- Wall-Haas, C.L. (1991). Nurses' Attitudes Toward Sexuality in Adolescent Patients. Pediatric Nursing, 17(6), 549-554.
- Zabin, L.S., Hirsch, M.B., Smith, E.A., Hardy, J.B. (1984). Adolescent Sexual Attitudes and Behavior: are they consistent?, Fam. Plann. Perspect., Jul-Aug., 16(4), 181-5.

- Abstract -

A Study of the Effects on the
Korean Adolescents' Sexual Role
Identity and Attitude by the
Audio-Visual Program for Sexual
Education*

*Kim, Young Hae***

The aims of this study were to identify the effects on sexual role identity and sexual attitude of the A-V programed sexual education on Oct. 1, 1997 through Sep. 30, 2000. The program was focused on the formation of the desirable sexual activity, attitude and androgyny sexual role identity of the Korean adolescents, and that was the 25 minute VTR media "Our sexuality is healthful". This study was non equivalent post-test only quasi-experimental design, and the subjects were 530 middle school boys in Busan, Korea. After the manipulation, the change of sexual role identity and sexual attitude was analysed. Outcome measures were middle school boys' sexual role identity toward KSRI on a seven-point Likert scale and sexual attitudes toward SAS on a five-point Likert

scale. The data was analysed by SPSS WIN. The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

- 1) The experimental group who was exposed to the A-V media produced by the author showed the higher score of androgyny sexual role identity than the control group who didn't watch the A-V program.
- 2)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the higher rate of the androgyny than the control group, On the other hand, their rate of the masculinity turned out to be lower than the latter group.
- 3) The experimental group didn't show the difference of SAS score from the control group .

In conclusion, "Our sexuality is Healthful" A-V program for sexual education brought about the significant change of sexual role identity of the middle school boys, but didn't affect their attitude toward sexual activity.

Key words : Sexual role identity, Sexual attitude, Sexual education program

* The author wish to acknowledge the financial support of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made in the program year of 1997

** PhD, RN, Associate Professor, at the Dept. of Nursing, College of Med. Pusan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